

대입에도 종교편향?

종자연 대처 주문

종교자유정책연구원(대표 박광서)은 서울여대가 입학사정관을 모집하면서 대상을 특정종교인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 교과부의 적극적 대처를 주문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최근 "2010학년도 입시에 47개 대학이 2만여 명을 뽑는 입학사정관제는 성취위주 학생 선별에서 잠재력 등 다양한 능력을 평가하는 좋은 제도다. 하지만 학생을 평가하는 입학사정관 채용이 대학에게만 맡겨져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정부예산을 지원받는 서울여대가 입학사정관을 특정종교인으로 뽑겠다는데, 교과부는 해당 대학의 소관일 뿐이라고 발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종자연은 이어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자의든 타의든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포기하게 한다"며 "일부 종교사립대학의 입학사정관 공정 채용위해 교과부는 관리 감독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덕현 기자

종교인 대화마당

종교환경회의 18~19일

종교간 소통과 연대를 통한 생명평화 사회실현을 목표로 하는 종교인대화마당이 열린다.

종교환경회의(공동대표 수경)는 8월 18~19일 1박2일간 김포 용화사에서 '생명의 강, 깨달음과 영성의길'을 주제로 '제8회 종교인대화마당'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 50여 성직자들은 경인운하건설 현장을 탐방하고, 깨달음과 영성에 대한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저녁과 아침에는 명상과 산행도 열린다. (02)720-1654 노덕현 기자

화려함에 흑하고 기운에 감동

연등축제 외국인모니터... "외국인 방문객 전용시설 역차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펼쳐진 연등축제, 외국인인 어떻게 봤을까?

외국인들은 연등축제를 '형형색색의(colorful)' '다양한(various)' '빽빽한 대중(crowded koreans)' '우아하고 격식 있는 (elegant, classic)' '압도적인 아름다움(overwhelming beauty)' 등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지관, 조계종 총무원장)는 7월 14일, 2009년 연등축제에 동참한 외국인 조사단의 응답을 종합해 <2009 연등축제 외국인 모니터 조사연구>를 펴냈다.

조사단은 미국과 중국, 독일, 브라질 국적자 등으로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외국인 4명과 1년 미만 거주자 6명으로 구성됐다. 조사연구는 축제조사 전문연구기관인 '기분좋은 트렌드하우스 QX'(대표 안이영 노기)가 맡았다.

조사 응답자들은 연등축제에 대해 △전통적이며 현대적인 축제 △역동적이며서 우아하고 흥겨운 축제 △매력적이며서 다양하고 보편적인 축제 △모든 이에게 개방적인 대규모 축제로 인식했다.

조사단은 연등축제의 경험을 화려한 색과 소리, 참여자의 정신, 불교적 가르침으로 분류했다. 이것을 통틀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무언의 매력, 특유의 기운과 분위기가 매력적이라고 응답해 동양적인 무형의 요소와 소통하기 시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유쾌하고 깨끗하나 편의시설은 다소 불편한 축제라는 이미지를 비롯해 외국인 방문객의 전용시설은 역차별로 인식돼 개선점으로 지적됐다.

한국불교를 배울 기회가 적다는 점과 부족한 통역 서비스도 외국인의 한국문화에의 접근을 막는 장애

요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외국인들은 외국인 방문객 전용시설이 한국인과 어울리는 기회를 갖아간다고 인식해 큰 거부감을 느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외에 △불교문화마당의 각 부스를 디자인으로 유형을 구분해 줄 것과 △제등행렬 동안 가로등과 네온사인을 소등할 것 △눈으로 보고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완할 것 △연등축제의 국내외 홍보에 투자를 늘릴 것 등의 제안도 있었다

봉축위원회 박상희 총괄팀장은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하면 외국인들이 축제 참여 전에는 시각적인 화려함에 주목하지만, 참여 후에는 연등축제의 '기운'에 감동 받는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며 "자료를 토대로 연등축제의 매력을 더욱 부각시키는 한편 개선점을 보완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불공비도 자동이체 시대

조계사·봉은사 도입... "사찰 재정 투명화가 관건"

사찰 불공비를 자동이체로 내는 시대가 열렸다. 일반적으로 연등과 인등비, 매월 슬쩍 초하루·보름 불공, 각종 재입 기도비로 재정의 대부분을 충당하는 사찰의 재정안정화와 더불어 재정투명화 단초도 제공해 주목받고 있다.

강남 봉은사는 7월 1일부터 신중기도비, 지장재입 기도비 등 각종 기도비에 CMS(Cash Management Service) 자동이체 서비스를 시행했다.

이에 앞서 서울 조계사주지 세민도 지난해 10월부터 각종 기도비를 CMS 서비스로 받고 있다. 시행 첫 달에 172명이 신청해 현재 380건 정도가 접수됐다.

CMS서비스를 시범 도입하는 등 속속 뛰어들고 있다.

각 사찰은 신도들이 종무소를 찾아 직접내거나, 봉은사 입금통장으로 계좌 이체하는 방식으로 기도비를 받아왔지만, 미납율이 높아 기도가 중단되는 일도 많았다고 밝혔다. 이처럼 사찰 CMS서비스는 경제 상황에 따라 변동이 많은 수입구조에 안정화를 꾀한다는 측면이 강하다.

불교계에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 CMS서비스가 불자들에게 널리 퍼지기 위해서는 사찰 재정 공개 등을 통해 투명화가 동시에 수반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원 봉투에 넣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기존방식보다는 낫지만, 매달 나가는 자신의 돈이 어떻게 쓰이지 모른다면 단순히 '사찰이 뜯어간다'는 인식만 심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부설 불교미래사회연구소는 2008년 사찰수입과 관련된 조사발표에서 "각종 불공수입이 사찰재정의 50% 이상을 차지한다"며 관리, 감독차원에서 사찰 CMS서비스 도입을 권장하바 있다.

2007년부터 신도회가 참여한 예산결과와 예산결산 내역 공개 등으로 큰 호응을 받고 있는 봉은사는 "재정 공개에 이어 1년여의 검토 끝에 CMS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며 "각종 편의제도와 더불어 예산 편성과 집행 전반에 투명성도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러 사찰의 CMS서비스 도입을 계기로 스님과 신도가 함께하는 삼보 정제 관리가 이뤄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노덕현 기자

광명불교환경연대 출범

여섯 번째 지역조직... 전국 조직 구성 초석



광명불교환경연대 창립식이 7월 12일 광명 금강정사에서 봉행됐다.

불교환경연대의 여섯 번째 지역조직인 광명불교환경연대가 7월 12일 광명 금강정사에서 공식 출범했다. 불교환경연대는 이번 자부 창설을 계기로 전국 조직 구성을 위한 초석을 닦고, 지역환경 현안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날 창립법회에는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수경 스님과 집행위원장 현각 스님,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범일 스님과 금강정사 회주 지홍 스님, 이호선 광명시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광명불교환경연대 대표 원명 스님(금강정사 주지)은 "광명을

자연과 함께 상상하는 곳으로 만들겠다"며 △빈그릇 운동 △어린이 불교생태학교 △에너지 절약 생활화 와 의식고취 △지역 환경단체 연대 사업 등 진행 계획을 밝혔다.

이에 앞서 수경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전대미문의 환경 파괴를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는 정부를 만났다. 대운하로 볼 수밖에 없는 4대강 사업은 국토 죽이기가 될 위험성이 높다"고 규탄하며 "한국불교 대표로서 자임하는 조계종단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은 대규모 살상을 방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노덕현 기자

"우리 부처님 돌려주세요"

서울 도봉사 前 주지 매매한 철불 되찾기 나서

"40년 넘도록 법당에서 모셨던 부처님이 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다니 말이 됩니까? 우리는 참회하는 마음으로 힘을 모아 부처님을 법당에 다시 모시고야 말겠습니다."

서울 도봉사 신도회와 '천년고찰 도봉사철불좌상되찾기 도봉구민대책회의'가 7월 17일 도봉사 철불좌상(서울시 유형문화재 제151호)회수 탄원 서명 고블 법회를 봉행하는 자리는 울분과 참회의 눈물로 얼룩졌다.

도봉사 前 주지 Y 스님이 사찰이 경매로 한 기업이 넘어간 직후 서울시 종로구 소재한 박물관에 철불좌상을 팔아넘긴 이후 처음으로 200여 신도들과 지역민이 철불회수를 위해 봉행했다. 이날 도봉사 신도회와 대책회의는

"불법으로 매매된 부처님을 어떻게 다시 모셔 오자"고 결의했다. 또 서명운동은 전개 관계, 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도봉사철불좌상은 고려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보물급 문화재다. 이 불상은 2007년 매매돼 도봉구와 종로구,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신고 됐다. 도봉사가 사기사건과



서울시유형문화재 제151호 도봉사 철불좌상.

경매 과정 등으로 혼란을 겪는 동안 매매된 것. 신도들은 "적법한 매매라는 주장은 법을 통해 가려졌지만 어떻게 신도들이 예불하고 기도하는 법당 안의 부처님을 사고 팔 수 있는냐"며 "수리를 위해 모셔가는 것이란 스님들의 말을 믿었던 게 잘못이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임연태 기자

'심성수련회' 주목하라

대한미래교육원 설립추진위 7월 29일부터

지성과 감성의 조화로 균형 잡힌 인간성숙의 인재봉사를 지향하는 (가칭)대한미래교육원 설립추진위원회가 법인 설립을 앞두고 지리산 선장사에서 첫 심성수련회를 연다. 이상주 한국지도자교육원 상임대표(前 교육부총리)와 이택휘 前 서울대 총장, 김년균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등 21인이 설립추진위원으로 참여하고, 류승국 前 대한민국예술원 회장, 성기호 한국예술문화진흥회 회장, 성기호 한국예술문화진흥회 회장, 성기호 한국예술문화진흥회 회장, 성기호 한국예술문화진흥회 회장 등 6인이 고문을 맡은 대한미래교육원 설립추진위원

회(위원장 이상주)는 7월 29일부터 하동 지리산 선장원(원장 윤거, 실무이사)에서 3박4일간의 수련회를 연다.

7월 29일~8월 1일, 8월 4~7일, 10~13일, 17~20일 네 차례에 걸쳐 열리는 '여백제학교살'은 명상수련과 생활요가, 잔잔한 시·그림의 감상과 실습, 전통예절과 동양학 고전 공부, 자연농 자연식과 대체의학 위주의 건강생활 강의, 산책과 휴식 등으로 진행된다. (055)882-5547 김성우 기자

한인 무용가 일 고찰 주지 돼 '화제'

1200년 유서 깊은 일본고찰에 한국 여성이 주지로 임명돼 화제다. 그 주인공은 중요무형문화재 '승무' 보유자 이매방 선생의 제자로서 승무와 살풀이춤 등 한국 전통 무용으로 유명한 김묘선(52)씨. 7월 16일 오사카 한국문화원 등

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부터 일본 시코쿠 고찰인 '대일사'(大日寺) 주지를 맡았다. 김씨가 이전의 주지가 된 인연은 김씨 남편인 오구리 고에이(大栗弘榮) 스님이 2007년 뇌경색으로 입적하면서부터다. 노덕현 기자



前 세계 '미세스 진', 현지 방필석 촬영

신생아 ★오행으로 이름을 지어주면 오복이오네★

자녀들의 이름이 좋은지 나쁜지 알고 계십니까?

내가 내 이름 뜻도 모른다면 무엇을 따로 알 것을 구하겠는가? 이름만 알려주어도 신비한 오행비법으로 건강, 적성, 재물, 미래운세 등 정확하게 무료상담하여 드립니다.

작명

이름을 잘 지어주면은 자식이 효도하고 아버지가 즐거우네 (子孝雙親樂) 집안이 화목하고 만사가 이루어지네 (家和萬事成)

이름은 평생 같이할 동반자요 잘못 만나면 고생이요 잘 만나면 행복이요

대다수 획수 작명은 말은 되지만 뜻이 맞지 않으니 뜻있는 곳에 참 이름이 있네! 뜻 있는 곳에 씨앗을 뿌리게나! 바닷물에 씨앗을 뿌리면 싹이 트겠는가?

고객이 인정한 한 장소에 20년 작명 국가공인 한자 1급 3번 합격

♪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전화 ♪

☎ 02)738-5577

* 작 명 : 국, 내외 우편발송 *

서울특별시 중로구 견지동 110-43 등용문빌딩 201호 (종각역 2번 출구 조계사역) 한국민속철학연구소 소장 방 필 석

운명을 바꾸는 아호, 개명

주역 개인지도

방필석 대외활동

- 前 인도 대통령 초청 방문
- 前 스리랑카 대통령 초청 방문
- 前 스리랑카 문화부 장관 초청 방문
- 서울 보명사 창건 공덕주
- 前 스리랑카 수상 서울 보명사 참배
- 前 스리랑카 수상과 함께 청와대 초청방문
- 현 한, 스리랑카 문화교류협의회
- 제14차 세계불교도우의회 한국대표 스리랑카 콜롬보대회 참석
- 제20차 세계불교도우의회 한국대표 호주 시드니대회 참석
- 세계불교승가회 대만 제오계 대회 한국대표단 홍보차 참석
- 일본 비구중 국제평화광도대회 참석
- 인도 녹야원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
- 現 서울 보명사 주역강의 강사
- 前 세계불교도 우의회 홍보차장
- 現 한국역리학회 중앙학술위원
- 現 한국민속철학연구소장